대안교육 투자 나서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3월 전국 비정규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各種學校)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을 규정하는 대안학교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유리한 여건을 갖춘 불교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불교계는 공식대안교육기관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척박한 실정이다.

2006년 1월 현재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총 25곳 대안학교 중 종교계열 대안학교는 15곳. 기독교 단체나 개인이 만든 학교가 9곳, 원불교가 6곳이다. 반면 불교계는 전무하다. 비인가 기관인 '실상사 작은학교' 만이 불교가 운영하는 유일한 대안학교다.

물론 불교계에서도 그동안 새로운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NGO 단체나 복지기관이 주도한 이러한 노력은 종단과 사찰, 불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대부분 무산됐다.

진각종 희당학원은 2007년 대안학교 설립을 목표로 3년 전 '희당학원 비전안'을 발표했으며,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001년 경북 청도에 약 2천 5백여 평의 부지까지 매입하는 등 야심차게 대안학교 설립에 뛰어들었으나 이사장과 실무진 교체 등으로 인해 좌절됐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역시 작년 3월 '청소년대안학교 몽(夢)'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학생부족을 이유로 1년만인 현재, 잠정 휴교한 상태다.

대안학교를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불교계의 의식부족과 만성적인 무관심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종단은 종립학교와 청소년교화연합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청소년 수련원과 각 사찰 청소년법회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청소년교화에 자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불교계가 대안교육에 뛰어들 경우, 단기간에 활성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매우 많은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안학교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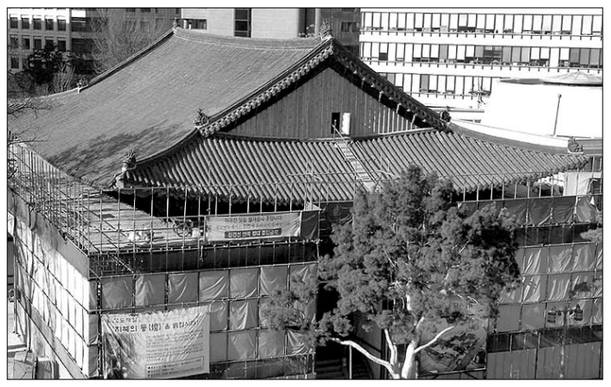
전국의 교구본사가 사찰수련을 정례화해 대안교실로 운영하거나 지역 포교당 및 불교계복지기관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법, 23곳에 이르는 교계 종립학교와 대안학교가 연계를 시도하는 방법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사찰과 단체를 넘어 종단 차원의 활성화 방안 수립도 중요하다.

실상사 작은학교 이경재 대표교사는 "대안교육을 '학교부적응자에 대한 교육'으로 볼게 아니라 '불교적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포교방안'으로 보아야 한다"며 관련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인식 확산, 대학생불자연합회 등 청년신행단체의 교육을 통한 불교대안학교 지도자 양성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진정한 불교대안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선입견 재고와 종단 및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유리한 여건 갖추고도 공식기관 없어
일부 설립 시도, 무관심으로 줄줄이 무산
불교 이념 실현할 새 포교방안으로 봐야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외형 살짝 드러낸 조계사 대웅전

'한국불교 일번지'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 대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27호)이 3년간의 보수 공사를 끝내고 지붕을 덮고있던 가설 덧집을 철거해 외형을 드러냈다. 조계사는 현재 진행중인 내부 단청작업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해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박람회 참가신청 봇물

2006한국불교박람회(www.bexpo.org)가 3월 23~26일 행사를 앞두고 관련기업들의 참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대형박람회인 이번 행사는 사찰건축 부문의 (주)풍산을 비롯한 대기업과 교계 대표기업인 고령기와, 법종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새롭게 불교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생업체들의 참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웅전 양식을 직접 지어 부스를 조성하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찰난방과 소방 등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도 부스를 따로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잔여부스에 대한 접수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전시품목은 '사찰건축 및 첨단포교' '전통차, 웰빙관' '불교장례문화' '불교용품' '여행사' 등. (02)736-0993 강지연 기자

내원암 소송 친일파 후손 패소

전통사찰 등록·점유취득 시효 조건 충족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땅 찾기 소송에서 내원암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지난 12월 30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이 남양주 내원암 일대 4만 8000여평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이해창 후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동관 557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원암은 1962년 전통사찰 등록과 함께 이 땅을 평온하게 점유해 오면서 1982년까지 점유취득 시효인 20년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심리 결과 이해창이 제국주의 협력 대가로 해당 토지를 하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소송을 각하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이해창이 친일 대가로 내원암 일대 토지를 취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강 부장판사는 "봉선사와 내원암이 친일행위자 토지소유권 인정법규 자체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도 피고의 승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내원암 주지 재문 스님은 "2000만 불자와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친일파 후손들의 후안무치한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원암측 변호를 맡아온 송상교 변호사도 "친일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 이모씨를 비롯한 21명은 지난해 말 내원암 일대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내원암 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냈었다.

유철주 기자

새만금 향한 만행 조계사서 출발

13일 새만금국민회의 주최

올 4월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새만금국민회의)가 만행을 떠난다.

새만금국민회의는 1월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조계사를 출발, 오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한다. 이어 어민간담회를 열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새만금국민회의 관계자는 "수많은 갯벌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던 어민들, 새만금 갯벌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수많은 생명지킴이들이 작은 희망도 지속될 수 없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만행은 새만금의 생명을 향해 떠나는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0-0301 박봉영 기자

여성 성직자 모임 삼소회 30여명

세계 종교지도자와 만난다

불교, 가톨릭, 원불교 등 서로 다른 종교 여성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三笑會) 소속 회원 20여명이 2월 7일부터 23일까지 각 종교 지도자들을 친견하는 성지순례길에 나선다.

이들은 2월 6일 전남 영광 원불교 성지에서의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다음날부터 인도 바라나시, 영국 런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성지, 파키스탄의 이슬람 성지, 로마 바티칸 성지 등을 답사한다. 특히 이번 방문 일정중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세계 성공회 지도자인 캔터베리 대주교 등과의 친견이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도 들러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삼소회 회원인 진명 스님은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제는 '종교간의 화합과 세계평화'"라며 "이번 답사도 각 종교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서로 다른 각 종교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성지순례를 계획한 것은 사실 2003년부터다. 각자의 출가하게 된 사연과 수행과정을 정리한 에세이집 <출가(솝리刊)>를 그해 펴낸 것도 이번 성지순례의 경비 마련을 위해서였다. 2년에 만에 성사된 이번 순례는 LG그룹과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031)969-4736 김주일 기자

수덕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수탁

충남 복지활동 활성화 기대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주지 법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수덕사 지부)가 지난 12월 29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자로 선정됐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사진)은 700평 부지에 건평 433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컴퓨터 교육실, 오락실, 취미교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향천사 부설 어린이집 원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준 스님이 관장으로 내정됐으며, 3월말 개관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은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으로 충남권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수덕사를 비롯한 충남 불교계가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두식 기자

강정구 교수 문제 갈등

"즉각 파면"-"직위 복원"

강정구 교수 문제로 동국대가 갈등을 겪고 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주형) 소속 100여명은 1월 2일 동국대 명진관 앞에서 '강정구 교수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총동창회원 중 주로 50대 이상이 모인 대회에서 강 교수 즉각 파면 등을 결의했다.

그러나 '강정구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측과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를 반대하는 동국대 졸업생들'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직위해제 반대 서명 명단을 공개했다.

남동우 기자

인드라망공동체 특강

'서울에 부처님 나툰다'

생명존중의 부처님이 서울에 나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주최하는 특강을 통해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서울에서 부처 만나기' 두 번째 강좌를 연다. 강좌는 1월 12일 '탄생과 발심', 13일 '출가와 수행', 19일 '깨달음과 전법', 20일 '열반'을 주제로 오후 7시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는 상임대표 도법 스님이 맡는다. (02)576-1886 박봉영 기자

진흥원 설립 30주년 기념

청소년 명상캠프 열려

격월간 <불교와문화>와 월간 <불광>은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진행했다. 70여 청소년과 10여 학부모 등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나도 부처님처럼'을 주제로 요가, 음악명상, 목탁염불 등을 체험했다. 특히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마련돼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불교와문화>와 <불광>은 사찰 및 불교단체의 수련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봉영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1월 5일 부터 □ 입학일 : 2월 27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